



표지사진 : 필리핀 민다나오 칼랑 가난마을 어린이들 (2003. 9)

JTS 통권 44호 2003년 11·12월

펴낸날 : 2003. 11. 1

펴낸이 : 유 수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김경희, 최정연,
이미경, 김희수, 김연숙, 송하경,
안정혜

펴냄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특 집

전국 100일 릴레이 캠페인과 거리모금

4 아름다운 손길들

인도통게스와리 소식

8 삶은 달걀과 따뜻한 우유 한 잔

11 아름다운 카스트

지금북한에서는

13 영양가루를 먹는 어린이

아프가니스탄 소식

15 지평선을 찾아 헤매인 방랑의 시간

따뜻한 이웃

17 북한 어린이와 함께하는 온곡초등학교

후원의 소리

20 돈이 아니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

21 한결같이 밝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활동보고 및 안내

22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북한 지원 사업

아프가니스탄 소식

국내사업

26 신규회원(개인,단체) 명단 및 물품지원

28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32 라진·선봉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34 따뜻한 이웃이 있기에...



아름다운 손길들

부산이 시작인지라 차례로 올라가리라 여겼는데 웬 열기가 이리 왁자찌껄 한지요. 식구도 적은데 100일 모금을 발심하셨다는 울산법당 박선영 법우님!! 파이팅입니다요. 그리고 너무 장하시네요. 글구 겁나게 밀어 부치시는 대구법당 보살님들 100일 릴레이 기도와 함께 시작하신다니 역시나!! 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함께 해나갈 수 있음이 격려도 되고 분발도 됩니다요.^^

부산역에서.. 동래역에서.. 부산대 앞에서.. 구포역에서.. 광안리해변가에서 J.T.S 어깨띠와 모금통을 든 정토가족들이 마음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망설여지고 쭈뼛거리는 우리지만 해보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첫 모금 때의 어색함, 거절당할 때의 서늘하고 무안한 느낌도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흔쾌히 동참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 우리도 굶는데 당신이나 많이 도와 주라! 할 때의 그분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가슴이 자라나고 있음을 모금을 하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굶주리고 아픈 사람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많이 부담되고 내 일처럼 여겨지지 않아 짜증도 나고 귀찮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나가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조

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 잔잔한 기쁨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여겨지만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도반들의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남녘 땅 부산에서 시작한 첫 마음들이 전국의 정토 도반님들께 전해지길 빌면서...

부산 모금 팀 - 8월 16일

우산 쓰고 하는 모금도 이젠 할만합니다.

처음에는 계속 거절당하며 길을 건너야했습니다.

배까지 고프니다. “적게 먹고, 입고, 자자!” 나에게 제일 찢리는 부분입니다.

이번 기간동안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길 건너 만난 여자 분이 관심을 보이며 어디냐, 사용처가 궁금하다며 물어옵니다.

친절하게 말씀드렸던

니.. 많이 못 넣어줘 미안하다며 내게 애교스런 “화이~팅”을 보내고 가십니다.

그래, 밥 안 먹어도 힘이 납니다.~~

으샤샤~ 기운내자!



▲부산 모금 팀



고마운 천사 같은 분 이었당...
 덕분이었을까? 잘 됩니다. 그분의 친
 절함이 내게 전달되어 왔을까?
 동전이라도 잘 넣어주십니다.
 으.. 저기 무섭게 생긴 분들.. 그렇
 지만 다가가서 말하고 있는 내!
 무심코 외면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큰
 소리로 불러 세웁니다. 또 무섭습니다.
 “뭐라고 애? 누굴 도와 애?” 아니 이
 것보다 훨씬 무섭게 말했습니다.
 “인도, 북한, 아프칸.....” 너무 당당하
 게 말하고 있는 내!
 “도와 야 재, 니도 넣그리” “우리도 좀
 도와며 살아야 되는데..” 그 외모에 마
 음은 비단결? 인가봅니다.
 다시 한번 힘찬 화이팅을 외치고 가십
 니다. 내가 떠썬해집니다.^^*
 어제 넣어준 분이 또 넣어주시니 더욱
 고맙습니다.
 모금하면서 보니, 외모와는 다른 경우
 가 종종 있습니다. 험상스럽게 생긴 사
 람들도 모금을 아주 잘 해줍니다. 나중
 에라도 다시 와서 해 주는 사람들이다.
 어느새 그분들이 내게 가깝게 다가와 있
 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 분은 갑자기 내
 말을 듣고 우두커니 걸음을 멈추더니,
 나와 마주섰습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찢렸거든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 몇
 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그는 가던 길
 을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뒤늦게 그분의 심정
 이 느껴웁니다.

오늘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모금과
 깨어있기에 집중했나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돌아왔습니다.

점점 이 모금을 잘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 모금팀 - 8월 18일

〈미녀와 건달들〉이라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지요.

거기서 세상에 제일 가는 망나니가 제안
 을 합니다. 뭐든 걸어라. 난 도박과 여자
 꼬시는 데 도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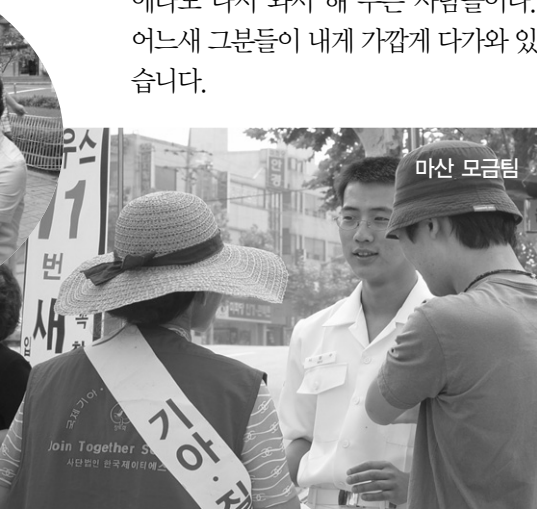
다른 패거리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
 장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여자가 있다. 그녀를
 유혹하면 우리가 큰돈을 주겠다.

그래?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냐?

저 변화가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 구세
 군아가씨다. 모금을 할 때는 모든 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망나니들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이죠.

법륜스님 말대로 뭐 대단한 일을 하겠





습니까? 그저 자기를 낮추고 낮추어 튼 튼하고 단단한 바닥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순수해지고 맑아지는 일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있겠습니까?

마산 모금팀 - 8월 22일

42 번 째 주자로 낙찰되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집 앞에서 후닥닥했습니다. 혼자 하기가 쑥스러워 순진한 제자를 끌고 같이 가자고 협박(?)했습니다. 작은아이가 큰 힘이 되었죠. 오랜만에 한지라 처음에 주빚주빚 어색했습니다. 한시간 버티자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시간이 좀 흐르니 좀 숙달이 되더군요 끝내고 올 땀 참 죄스럽더군요. 좀 더 오랜 시간 못한 것 더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다가서지 못한 것 등등..

못난 맘들만 보이더군요.
사는 것이란 참 모호해요.

돌아서면 후회할 일들을 왜 하는지.... 후회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광주 모금팀 - 9월 22일

이 곳에 오니 웬지 쑥스럽군요.. 오늘부터 대전법당을 49일간 릴레이 거리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창피하고 민망스럽고 돈의 액수에 구애 없이 온몸과 온 마음으로 모금하겠습니다.

다. 49일 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만과 아집을 천도시키는 마음으로 재미있고 신나게 하겠습니다.

동전 하나 하나에 몸과 마을을 실어서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대전 모금팀 - 10월 4일

‘금’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150원으로 한끼를 먹고 천 원이면 7명의 아이들에게 한끼 밥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왈각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디오에서 본 그 아이들, 발원문 속에 있는 그 아이들..

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그 아이들이라도 되는 양,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에 서러워서 몇 번을 눈물을 참아야했습니다.

모금을 주신 분들에게도 눈물이 났



울산 모금팀



다. 거절하고 돌아섰다 마음에 걸렸던 지 한참 후에 다시 돌아와 천 원을 주고 가시는 아저씨.. 중풍인지 선천성 장애인지 모르지만 불편한 몸으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느릿하게 돈을 넣고 느릿하게 웃으면서 가시는 한 아저씨의 모습에선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순수를 느끼면서 가슴이 메였습니다.

돈벌이로 이용되는 여러 모금 행위들로 저조차 이런 거리 모금에 편견을 두고 외면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외면했던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갈수록 마음의 문을 닫아야만 자신을 지키듯 변해 가는 세상 속에 그래도 깨끗이 선을, 사랑을 믿는 그분들의 모습에 내가 사랑을 배우게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어준 많은 분들과 법당에 봉사자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이 한 몸 또한 부처님의 뜻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좁쌀 한 톨이라도 되길 다짐해 봅니다.

대구 모금팀 - 10월 22일

따 스한 이웃이 있기에....오늘도 날씨가 약간 풀려 추위는 느끼지 못했지만 주중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더욱 보이지 않았습디다.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러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모금에 돌입했습니다.

많이 모금하려는 것도 욕심이고 단지 마음을 다해서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얼마 후 학교 3학년 여학생 제자들이 합창제를 단체로 관람하고 차 없는 거리로 몇몇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모금을 하겠냐고 물어보니 선뜻 응합니다.

착한 놈들, 학교에서도 착한 놈은 어디 가서도 착한가봅니다. 시골아이들이라 때는 잘 하지 못하더니 여학생들이라 그런지 차분하게 모금을 잘도 합니다.

저들끼리 버스정거장에 가서 해오기도 하고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고마웠습니다.

모금이 끝나고 우리 가족들과 학생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모금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제천 모금팀 - 10월 25일





삶은 달걀과 따뜻한 우유 한 잔

진혜미 / 인도 지바카 병원 자원봉사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병원 시스터즈 Rekha, Pushpa, Sudha입니다. JIVAKA HOSPITAL에서 함께 일하고 있지요.

지바카 병원은 일반진료와 더불어 결핵퇴치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곳 등게스와리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결핵을 앓고 있습

니다. 충분하지 못한 영양공급과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은 이들의 결핵 감염율을 높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더 이상의 세대간 감염을 막기 위해서 JTS는 개원 당시부터 결핵퇴치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결핵환자는 총 65명으로 그 중 13명은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입니다. 병원 소개는 이쯤으



로 하고 이들과 함께 하는 일상을 들려 드릴까 합니다.

“나마스메 ~ 시스터!”

우렁찬 아이들의 인사소리로 병원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해맑은 미소로 상쾌한 아침을 맞게 해줍니다. 언제나 제일 먼저 도착하는 Chintu(2학년), 개구쟁이 Satyendra(3학년), 태권소년 Sanoj(4학년), 모델 이소리를 닮아 예쁜 Punam(5학년), 수줍음이 많지만 의젓한 리더 Neelam(7학년), 병원에서 결핵 파트 일을 돕고 있는 Sangita(8학년) 이들 모두 결핵을 앓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밖에 Pawan, Sanam, Sanjay, Reeta, Jitendra, Ravindra로 모두 13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결핵파트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환자들에게 약을 전달하고 있고 매일 오전에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의사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수자타 아카데미 결핵학생들에게 매일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환자들에게는 영양식으로 샷두(인도식 미숫가루), 짜나(불린 콩), 삶

은 계란 그리고 우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오전 수업으로 인해서 영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핵환자는 무엇보다 영양상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곳의 현실은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병에서 빨리 회복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더 빨리 병과의 싸움을 끝내고 그저 여느 그 또래들 처럼 밝게만 자랄 수 있기 바라는 소망을 매일 아침 따뜻한 우유에 실어 나릅니다.

매일 오전에 배달되어 오는 우유는 그날 아침에 젖소에서 직접 짜 바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일반 살균된 우유와는 조금 맛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우유를 펄펄 끓인 후 제공한답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매일 뜨거운 우유를 땀을 뻘뻘 흘리며 호호 불어 마십니다. 이런 우유에 익숙하지 않을 터라 설탕을 조금 많이 넣어 달게 먹지요. 그리고 격주로 우유와 함께 영양만점인 완전식품 삶은 달걀을 제공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아이들이 오지는 않았 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결핵을 앓고 있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부끄러웠나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받으러 오는



것조차 숨바꼭질을 하듯 몰래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병원을 찾는 아이들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서로가 친숙해져 낯설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제 아이들은 제법 장난도 치고, 우유를 더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병원에 오는 것이 익숙해졌나 봅니다. 학교에 늦는다며 우유를 빨리 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우리 세 자매를 즐겁게 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의 하루를 즐겁게 하는 활력소가 됩니다. 짧은 힌디어로 얘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갈수록 애뜻해져만 갑니다. 그 아이들의 아픈 곳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 학교 그리고 꿈을 알게됐습니

다. 우리 세 자매에게 이 아이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아이들을 보지 않으면 안부가 궁금해지고 보고 싶어지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고작 우유 한 잔과 삶은 달걀이지만 아이들은 우리에게 전에 알지 못했던 특별한 사랑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소박한 영양식이 아이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아이들의 몸이 금새 건강해지기는 어렵겠지만 따뜻한 손길이 더해진다면 그리 머지 않아 아이들 모두가 두툽한 약봉투를, 아침마다 병원에 오는 번거움을 잊고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병과는 거리가 먼 보통의 아이들처럼 밝게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카스트

이재성 / 인도 제이티에스 건축파트 자원봉사자

들어가며

인도를 다시 찾았다.
전에 여러 번 배낭을 메고
인도 구석구석을 정신없
이 헤매었다. 인도는
내게 무엇인가?

하나씩 환상을
깨어나가는 과정이
었다. 문화적 충격
으로 다가왔던 인도
도 이젠 모든 게 익숙해
졌다. 단지 달라진 점은 전
에는 배낭을 멘 여행자였지만 지금은
자원봉사자인 것이다. 너무나도 친숙한
인도, 인도는 변한 게 없고 내가 조금 변화
하고자 다시 찾았다.

혹서기

여러 파트 중 내가 맡은 곳은 건축공사
파트. 대개가 학교, 병원, 마을개발 등 직
접적 역할을 하지만 공사파트는 그런 파



트들을 지원하거나 유치원 및 마을 상하
수도 등을 지어주고 수자타 아카데미 내
건물 보수 및 신축을 담당한다.

타는 듯한 더위. 말라붙
어 가는 대지. 모든 게
고갈되어 가는 계절.
서있기도 힘든 시
기.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기엔 가혹
한 계절이기도 했다.
긴 점심시간을 지나고
일하는 시간 반, 쉬는 시간
반. 공사진척은 느리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뿐. 느려터진 인
도인들. 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일어서기
를 바랄 뿐이다. 처음 이들 이름 외우는
것도 꽤 긴 시간이 걸렸다. 이들과 일하
는 게 익숙해지고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갔다.

여느 봉사자처럼 한국에서 전문가가
아니었던 만큼 일을 하며 배워나갔고 이



들의 스타일을 최대한 유지하여 했다.

우기

시간은 끊임없이 흐른다.

결떡거리는 숨이 넘어갈 즈음 단비처럼 비가 내렸다. 예전보다 조금 늦은 우기. 그렇게 우기가 찾아왔다. 웅덩이들이 생겨나며 다시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고 이젠 더위가 아니고 모기때.

거의 매일 비가 내렸다. 이젠 비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 그리고 농사철이 시작되어 자주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각종 전염병과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 전에는 뜸하던 가불이 매일 매일이다. 그래서 형편이 조금 나은 기술자들 보다 단순직 노동자들은 모두가 돈을 가불해 가 빚진 사람들뿐이다.

계다가 집들도 허술한 초가집. 빗속을 뚫고 와 집이 무너졌다며 충혈된 눈으로 눈물을 연신 떨군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배수로 공사 중에는 이곳 형편을 몰라 막아놓은 독이 두 번이나 터져 재공사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이 바뀐다. 사람들이 미워졌다 좋아졌다. 때로는 연민으로 때로는 가혹하게. 사람들 속에서 나도 그렇게 이 곳 생활에 동화되어 갔다.

가을

비오는 양이 줄고 회수도 줄어들며 서서히 우기가 물러갔다. 들판을 가득 채운 푸르스름한 들도 예전, 벌써 추수하는 논들이 하나 둘 늘어간다.

공사에는 탄력이 붙었다. 여전히 사람들은 느리고 내 생각은 앞서가지만 적절하게 사람들을 배치하고 제때제때 공사자재를 조달한다. 자주 자재 마켓팅 덕에 가야에 단골집들도 많이 늘어 어느덧 반현지인이 된 듯 싶다. 공사파트 외에 테크니컬 스쿨에서 드로잉과 페인팅 수업을 하고 있다. 공사 짬짬이 교재를 만들고 수업을 하느라 어떤 땐 공사 땀에 수업에 빠지고 어떤 땐 수업 땀에 공사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곧 겨울이 찾아들겠지.

맺으며

한 번 비자를 연장했다. 가끔 이곳을 거쳐 간 봉사자들을 떠올린다. 그들의 숨은 땀과 노력들로 이곳도 안정된 느낌.

학교의 학생들, 병원 스텝 그리고 현지 스텝들 모두와도 친해졌다. 농담과 장난을 너무도 즐길 만큼.

언제쯤 떠날 수 있을까? 한동안 지원병이 안 온단다. 탄약은 충분히 있는지?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 시간은 충분하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할 뿐.



영양가루를 먹은 어린이

박지나 / 제이티에스 해외사업본부장

라진의 날씨는 어떠한가요?

첫날 라진에 도착했을 때에는 구름이 끼었다가 햇벌이 짹짹 내리쬐어서 따듯했고 서울과 비슷한 날씨였습니다. 동해를 끼고 있는 JTS 어린이 영양식 공장에 들어서니 정말로 상쾌한 공기와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들은 붉은 단풍이 빨갛게 들었고, 특히 라진은 소나무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날은 우박이 쏟아지다가 소나기가 때려서 내일부터 추워지겠다고 그곳의 관리들이 말하였습니다.

다녀오신 유치원과 탁아소는 어디이고 아이들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라선시 사회젯소목장유치원, 적지농장유치원, 라선시 장로채종농장탁아소·유치원, 라선시라진항탁아소 등 4곳이었습니다. 주로 시내가 아닌 시골에 있는 곳을 다녔는데 시내는 일요일은 쉬는데 시골에는 한 달에 3번 유치원과 탁아소가 쉬는데 1일, 21일, 31일이어서 마침 간 날이 쉬는 날이어서 놀러 나온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만난 어린이들은 몇 명은 얼굴에 버짐이





렸지만 다수의 어린이들은 건강해 보였고 예전보다도 무척 활발하게 뛰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찍은 비디오를 보여주시 너무 좋아하면서 이게 누구누구다라고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꼭 남한 시골의 어린이들을 보는 것 같았지요.

선봉에 있는 적지농장유치원에 가보니 무척 낡은 모습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바닥에 깔아놓은 장판이 무척 낡아서 군데군데 시멘트 바닥이 보이고 하여 두꺼운 장판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선시 라진항탁아소에 있는 교장선생님께 JTS에 당부할 것이 없는가 하고 물으니 '다른 사항은 없다.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영양식을 계속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JTS에서 지원한 영양식을 먹는 동안 어린이들이 한번도 설사나 배알이 등이 없이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하며, 어린이들이 무척 좋아하고 덕분에 잘 자라고 있다. 보통 70%이상의 어린이들이 영양 상태가 실하다.' 고 하셨습니다.

어린이 영양식 공장의 상태는 어떠 하던가요?

공장에 도착한 것이 4시 40분 경이었고 공장 인부들은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고 공장에서 만든 영양가루를 운반하기 위해서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오면서 후원자들에게 맛보게 하기 위하여 영양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9월 초순에 공장 부품들이 마모된 것이 많아서 교체해 주었기 때문에 기계의 상태는 양호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낸 영양식 원재료들이 대부분 12월분 까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라진에 달라진 모습이 없나요?

라진의 장마당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진 것에 놀랐습니다. 건과물, 과일, 생선, 의류, 신발 등 다양한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이전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선 시내나 시골에도 예전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모두 활발하게 보였습니다.





지평선을 찾아 헤매인 방랑의 시간

정태경/ 아프카니스탄 자원봉사자



고등학교 일 학년 때 즈음으로 기억된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신 영어선생님의 세상구경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는 꼭 봐야지 하는 것들이 있었다. 특히 지평선에 대한 그분의 찬미는 어린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고, 지금까지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꼭 보고싶고 봐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광활한 대지, 지평선을 보면 무언가 느껴지고 감동 받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었을까? 선생님이 들려주신 지평선은 우리 나라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먼 이국 땅에나 있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해 왔던 것 같다.

지평선 얘기를 꺼낸 건 이곳 아프카니스탄 칸다하르에서 뜻하지 않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황량한 대지가 끝없이 펼쳐있는 지평선이 내 눈앞에 있었다. 저것이 내가 찾던 지평선인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내가 품어오던 지평선은 이런 것이 아닌 좀더 웅장하고 가슴 벅차게 만드는 것이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 지평선이었다. 그렇지만 느껴지는 것은 너무도 달랐다. 황량하고 먼지만 휘날리는 아무런 감동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내가 삶에



서 찾고자 하는 것도 결국 저 지평선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꿈이라고 여겨온 것들, 삶의 의미, 내가 이루고자 노력했던 것들이 결국은 저 지평선 같은 것일까? 내가 만들어 낸 지평선을 찾아 헤매인 방랑의 시간들을 이 먼 이국 땅에서 반성해본다.

과연 몰랐던 것일까? 지금 내가 서있는 곳이 지평선임...

한국을 떠난 지 10개월이 지났다. 인도에서 5개월, 아프카니스탄에서 5개월, 그리 긴 시간도 아닌 것 같으면서 꽤나 오랜 시간이 흐린 것 같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안에서 작은 틀 안에 갇혀 작은 것만을 보고 그 작은 것이 전부인 양 살아왔던 내 모습을 이 먼 이국 땅에 와서야 볼 수 있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좌절도 많았고, 반면에 스스로 칭찬해 주고 싶은 일도 많았다. 당연한 것이라고 믿어 왔던 것들이 고정관념이고 편견임을 느끼게 해준 일도 많았다. 나와 다른 생활환경에서 다른 관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까 답답해했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는 생각은 그들 삶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할 수 없고,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을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 경우엔 그리 당연하지 않았고 결코 쉽지 않았다. 이것을 깨닫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내 어리석음을 새삼 느낀다.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고, 내 생각을 조금은 놓을 수 있게 되면서 내 모습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고 참으로 어리석었음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의 학생들, 병원에서 일하면서 내 마음을 가장 심란하게 만들었던 결핵 환자들, 가야시장의 장사꾼들과 많이도 싸웠던 릭사꾼들, 아프카니스탄 칸다하르 IDP 캠프난민들, 컨테이너 옷 분류 작업을 같이했던 아프카니스탄 아주머니들, 그리고 먼 이국 땅에서 만난 많은 한국사람들 등등. 긴 꿈을 꾸는 것 같다. 재미있는 꿈, 화나는 꿈, 기쁜 꿈, 슬픈 꿈들이 한편의 영화처럼 느껴진다.

고마운 만남이었고 소중한 만남이었다. 이 시간들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은근히 기대도 되지만, 무엇보다 이 경험들이 큰 재산임을 느끼며, 추억만으로도 값진 것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북한 어린이와 함께하는 온곡초등학교

새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있는 화사한 가을날 북한어린이를 돕기 위해 전교생이 돼지저금통을 모은 서울 노원구 상계 9동에 자리잡은 온곡초등학교 통일교육 담당 김영문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저희 단체를 알게된 동기와 전원생을 대상으로 돼지저금통을 분양하게 된 동기는요?

역사에 관심을 갖고 문화재를 답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변 사람의 권유로 법륜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한 사람들이 홍수로 굶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누군가 인도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웃에 있는 우리동포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수요저녁법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별로 현실성이 없는 문제라 단념하고 잊고 있었는데 법륜스님이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 때 받은 감동이란.....그리고 인도에 가서 수자타 아카데미를 방문하고 받은 감회는 참으로 깊었습니다. 음...그 때 법륜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군요. 내가 탁발해서 북한동포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해야하지 않겠냐 던 말씀....정말 목적이 중요하다면 최선을 다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모임에서 함께 참여하자고 해보기도 했지요.

이번 학교에서 내가 맡은 업무가 통일교육이랍니다. 통일교육을 전교생에게 제대로 잘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구상하다가 자연스레 통일돼지저금통이 생각이 났지요. 작년에는 우리 반만 하고 다른 반에게도 권했는데 분양만 받고 회수가 잘 안

되기도 했지만 올해는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침 생긴 것이지요. 학교에서도 좋다고 했고 그래서 일을 추진했답니다. 학생들에게 통일돼 지 저금통에 관한 비디오를 2번 보여주고 나진선봉지역 탁아소와 유치원을 소개한 후 가정통신문을 보내 희망자에 한해 돼지 저금통을 분양했답니다.

학생들은 저금통을 받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요.

올해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북한에 대해 대립적인 감정이 많이 두드러졌지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북한 어린이들 돕는다가 손을 들었는데 집에 가서 반대 소리 듣고 안 한다는 아이들도 있었지요. 가슴이 아팠답니다. 평화를 진정 원하면서 하는 행동은 반대되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일단 돼지 저금통이 예쁘니까 좋아하고 또 돕는 일이 좋으니까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2번의 비디오로 아이들에게 통일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도록 하기엔 역부족이었던지.... 열심히 모으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일이지요.

저금통을 모으면서 어려운 점과 보람된 점은

우선 보람된 일은 이 돈이 모여서 북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기





쁘고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나누며 사는 태도를 갖게 할 수 있으니까 좋죠. 어린이 후원활동은 참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어려서부터 남과 나누며 더불어 살고자 하는 자세를 길러주어야 어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나눌 줄 안다고 봐요.

어려운 점은 역시 사람들의 인식이지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며 왜 도와주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에.. 한국전쟁때 북한의 남침을 열심히 말하면서 옛날 사고방식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식...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가장 어렵지요. 하지만 뭐...그 사람들도 때가 되면 깨닫고 도울 수 있겠지요. 다만 자꾸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니 해보는 거지요.

그리고 아이들의 감성을 울려 공감을 얻어내고 그런 공감의 실천으로 저금통의 일들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의 한계점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제가 하고싶은 일이야 물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겠지요...그리고 내 삶 스스로가 삶과 교육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고요. 그런 나의 실천 속에서 아이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뭐...^^

모든 교사가 꿈꾸고 있는 것이겠지요.^^ 뭐 통일돼지 저금통 모았다고 이런 것까지..좀 부끄럽습니다.





돈이 아니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

박정덕 / 회원, 부산지방법무사

2001년 가을 우연히 지하철역 벽보에서 법률폰스님의 금강경강의가 부산정토법당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스님의 금강경강의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적이 있고, 또한 법률폰스님께서 텔레비전 프로에 나와서 북한기아의 실상에 대하여 생생하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새로워 바로 수강신청을 하고 법당에 나가서 직접 스님으로부터 금강경, 반야심경, 육조단경 강의와 법문을 듣고 예불을 본 것이 정토회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불교강좌를 접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불법에 눈을 뜬것은 법률폰스님의 강의와 예불, 테이프강좌 등을 통해서였으며, 무엇보다도 (사)한국제이티에스에서 하고 있는 북한기아 돕기, 인도의 문맹, 질병, 퇴치, 기타 제3세계를 돕는 등의 보살행은 기존 교단에서 하지 않는 그야말로 실천불교로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력하지만 조금이라도 남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 기아 돕기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떠나서 당연히 민족 전체가 발벗

고 나서야 하는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법무사로서 제가 하고있는 일은 주로 법률상담을 통하여 서민들을 만나는데 대부분 돈 문제, 가정문제 상담입니다. 돈을 받지 못하여 소송하고, 강제집행하고, 고소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이혼문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살펴보면 '돈'이라는 문제와 이기주의라는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돈이 아니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야 하며, 나 아닌 다른 사람 즉, 남편, 부인이 행복하여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송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해야 하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아니더라도 보살행으로 라도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사회가 조금 더 건전한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행무상, 제법무의 가르침이 우리나라, 나아가 전세계에 퍼지기를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한결같이 밝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고진우/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과 3학년

JTS는 국제기아·질병·문맹퇴치 민간기구이다. 다소 생소하고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문구이지만 실제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문구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만큼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

JTS의 업무와 활동내역의 설명을 들은 후에 홍보 비디오를 보게 되었고 인도의 빈민촌과 북한의 어린이돕기,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등에 직접 구호물품을 전달하거나 학교를 짓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 실제로 해외에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였다.

정토회란 큰 테두리 안에서 JTS를 비롯한 작은 단체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일일이 각 부서마다 업무내용소개를 해주셨다. 그 많은 분들이 모두 자원봉사이거나 무보수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모두들 한결같이 밝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감탄을 하였다. 그리고 아껴 쓰기 실천의 일환으로 화장실에서도 휴지를 쓰지 않는다, 쓰레기통이 없는 것, 따라서 일체의 쓰레기 발생이 없다는 것과 재활용품 이용의 실천 등 많은 것들을 목표로 세우고 실천하는 곳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손에는 돼지 저금통(사랑의 돼지) 하나를 들고 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원봉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거리모금과 여러 단체의 모금 시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놈이었다.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날 자원봉사자로 인도에 6개월 계획으로 등계스와리 마을로 출발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연약해 보이는 여자의 몸으로 장기간 외진 곳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임에도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하였다는 것이었다. 일체의 여행경비도 자비로 가는 것으로 인도 등계스와리 마을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직접 가르칠 계획이라 하였다. 저는 비록 사회봉사자로서 학점이수가 우선 목표로 온 것이고, 그 여학생은 보다 넓은 시각으로 타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새삼 내가 부끄러웠다. 우편물 분류와 발송물품의 분류 자료검색과 홍보 등으로 어찌든 빠근하고 30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서 멀리서 불어오는 선풍기 바람에 의존하며 생소한 것들을 해보려니 피곤했던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제 책상 한 구석에는 자그마한 돼지 한 마리가 놓여있다. 한 달 동안의 사회봉사를 통해서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신보다 불우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생활하는 너무나도 훌륭한 숨은 부처님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종종 그곳에 들러 기꺼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한양인,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이 되겠노라 다짐한다.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 이사장님이신 법륜스님과 박지나부
장님 외 2명 인도 JTS 현장 방문



지난 10월 7, 8일 양일간에 걸쳐서 JTS 이사장님이신 법륜스님과 박지나부장님 외 2명이 인도 JTS 현지를 방문하여 향후 사업 전반에 대한 의논을 하였다. 또한 인도 JTS에는 10월 4일부터 한국으로부터 파견된 병원 담당 이명희님과 이수진간사님이 현장에 파견되었고 수자타아카데미 양호교사를 담당하던 양성숙님이 2번째 장기 봉사 활동에 동참하였다.

- 등계스와리 빅 뉴스-노동자들 여권 만들기

인도스텝 5명, 기술학교 학생 8명, 청소년노동학교 2학년 6명, 기술자 9명 총 28명으로 외국에 견학, 자원봉사, 기술연수 등을 목적으로, 약 3주간 매일 가야, 보드 가야, 파트나를 오가며 어렵게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시민증을 받아 들고 얼마나 흐뭇해 하던지.....

- 지바카 병원 10월부터 새로운 의사 오심

호모패틱 의사 1명이 화-토, 앨로패틱 의사 1명이 매주 일요일 오전 진료를 하게 되어 진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 업무 정상화와 체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매주 3회 마을을 순회하며 치료를 해주는 모바일 클리닉을 할 예정입니다.

북한 지원 사업

- 함경북도 청진 고아원, 라선시 탁아,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내복과 설탕을...

지난 10월 12일에 라선시의 탁아,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내복 4,953벌과 설탕 9톤, 함경북도 청진의 고아들을 위한 내복 4,200벌과 설탕 9톤이 지원되었다.



올해에도 추운 겨울날씨에 아이들이 내복을 입고 따뜻하게 보냈으면 한다.

이번에 지원된 물품들을 배분하고 북한의 상황을 둘러보기 위해 박지나 해외사업 본부장님이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라선에 가서서 그 동안의 공장 운영 상황과 보

낸 물자의 인수를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토론했다.

아프가니스탄소식

● 2003년 하반기 아프가니스탄 지원 프로젝트로 5천만 원이 결정

지난 10월 2003년 하반기 아프가니스탄 지원 프로젝트로 5천만 원이 결정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남부 림프즈와 바미안 지역 답사 후 계획된 사업내용에 의한 것으로 2004년도 상반기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국내사업

● 인도 JTS 사무국장 이회승(산띠) 귀국 보고회

인도 JTS 사무국장 이회승(산띠)이 8월 26일-28일 오전까지는 실무자 수련, 8월 28일-30일 있었던 정토회 총회보고와 실무자, 자원활동가 수련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에 왔다.

인도의 현지 상황에 대한 자세한 보고회도 있었다.

● 법륜이사장님 김경희님의 필리핀 민다나오 현장 3차 답사



지난 8월30일 -9월4일까지 이사장님인 법륜스님과 김경희(지혜명)님이 필리핀 민다나오 현장을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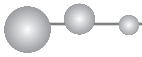
9월3일 오전 10시-12시까지 민다나오 10개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앞으로 학교 건축과 학용품을 나누어 줄 예정이다.

● 자원활동가와 공주군 동학사에서 야유회



9월25일 (목) 자원활동가 신도님들과 부서원 총 11명은 동학사를 찾아 참배한 후 가까운 괴목정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그동안 일하면서 어려운 점을 서로 나누었다.



● 가을학기 대학생 자원봉사자 교육



지난 9월27일(토) 오전 10시-12시까지 세미나 1에서 한양대 8명, 동국대 2명, 국민대 1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소개, 홍보비디오 시청, 소감나누기 등의 교육을 받고 홍보부, 자원개발부, 총무부 등 각 부서에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 인도 겨울나기 물품 보내기

40피트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의 물품이 인도로 갔다. 담요와 겨울 의류, 신발과 문구류, 수건, 비누 등 생활필수품들을 모아서 보냈다. 전국에 있는 관련업체를 비롯해서 서울, 부산, 마산, 대구, 대전, 청주, 광주, 울산 등 전국법당에서 모아 주신 따뜻한 마음이 담긴 물건들이다. 10월 6일 부산 고려용당CFS에서 인도로 출발했다. 한 달 정도 배로 이동하게 되고, 물건을 정리하는데도 여러 날이 걸린다. 그래도 올 겨울 추위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 대북협력민간담체협의회 워크샵에 참석



지난 10월 10일-11일 양일간에 걸쳐서 경기도 수원 한국수출입은행 연수원에서 대북협력민간담체협의회 워크샵에 이지현 국장 외 실무진 4명이 참여하였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샵에서는 회원들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대회와 북한 구호 활동(일반 구호, 농업축산, 의료)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 일본 피스보트에서 북한돕기 거리캠페인 모금 140만엔 기탁



일본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유명한 피스보트에서 일본의 젊은 청년들이 지난 5월부터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캠페인을 한 돈을 140

만엔을 가지고 피스보트 스텝인 금령하씨가 한국제이티에스 사무실을 방문했다. 북한에 대한 비우호적인 감정이 대다수인 일본에서 5달간 모금한 이들의 활동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피스보트 북한돕기 캠페인 멤버들은 지난 8월에도 한국제이티에스를 방문하여 명동에서 공동 모금을 했고 그때에 지원한 돈 24만엔을 합하면 총 164만엔을 라진선봉 탁아유치원어린이 영양식 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 돈으로 라선 어린이 3,280명이 한달간 먹을 수 있는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모금 캠페인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국민은행 (청담역지점)에 돼지 저금통 5개 설치

지난 10월14일 김중수님의 홍보로 청담역지점에 돼지저금통 5개 설치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보였다. 지정장남과 직원 여러분들의 따스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거제도 사등면 가조도 섬마을 수재민에게 물품 지원

지난 10월19일 거제도 가조도 7개 마을과 일운면 2개 마을 총 166가구 중, 거제도 사등면 마을 107가구에는 쌀과 전기밥솥을, 일운면 2개 마을 59가구에는 밥솥을, 166가구 중 피해가 가장 심한데도 지원이 별로 없어서 거의 아무 것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가구에는 생필품과 옷, 식기도구 등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 지난 9월17일에도 거제도 애광원(재활원)을 찾아 성인, 어린이옷, 치약, 비누, 수건 등을 물품을 전달했다.

● 정기이사회를 개최

11월 15일 오후 2시-4시까지 서초동 소재 정토회관에서 올해 년도 평가와 2004년 사업의 대략적인 계획을 검토하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

●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소년·소녀 가장 돕기 장학금이 매월 지급

매월 25-28일 사이에 서초구청에서 소년·소녀 가장 11명에게 1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사) 한국제이티에스 부서 개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부 → 최양희님

*총무부·홍보부 최양희님에서 → 홍보부 류희원님

*자원개발부-김애경님에서

· 전국 복지팀 → 김희수님 · 거리모금 → 송하경님

· 통일돼지저금통 → 안정혜님 · 업체모금 → 김애경님



신규 회원(개인, 단체) 명단

2003. 08.01~2003.0930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북한 어린이 결연

최현락 211-11788-11
 류재현 211-11791-11
 정은지 211-11792-11
 유재동 211-11793-11
 안승진 211-11794-11
 박미홍 211-11795-11
 주영임 211-11796-11
 하수정 211-11797-11
 최선희 211-11798-11
 정선영 211-11799-11
 이지연 211-11800-11
 김민정4 211-11801-11
 서주린 211-11802-11
 최정식 211-11803-11
 이양근 211-11804-11
 김문식 이지혜 211-11805-11
 이희자 211-01024-11
 이남혜 211-11806-11
 왕미경 211-11807-11
 손권일 211-11809-11

김광원 211-11810-11
 장영숙 211-11811-11
 유환용 211-11812-11

인도 어린이 결연

김무로 111-03167-14
 김진희 111-03166-14
 임재찬 111-03168-14
 배성춘 111-03169-14
 문병석 111-03171-14
 김청수 111-13173-14
 박종인 111-00600-14
 변재욱 111-03174-14
 최명희 111-03175-14
 안병기 111-03176-14
 고평자 111-03178-14
 조우정 111-03177-14
 문선희 111-03179-14
 신광호 111-03180-14
 이종행 111-03181-14
 허 관 111-03182-14
 성영애 111-03183-14

최영준 111-03184-14
 최소영 111-03185-14
 손광희 111-03186-14
 이만덕 111-03187-14
 김영찬 111-03188-14
 최성숙 111-03189-14
 정은성 111-03190-14
 김정화 111-03191-14
 이종화 111-03193-14
 양애자 111-03192-14
 엄승희 111-03194-14
 윤채희 111-03195-14
 정은선 111-03196-14
 김훈태 111-03197-14
 정상훈 111-03198-14
 최은미 111-03199-14
 김명록 111-03200-14
 이종심 111-03202-14
 박지상 111-03203-14
 박영기 111-03204-14
 채지원 111-03205-14
 표순례 111-03206-14
 박종연 111-03207-14

김창숙 111-03208-14
 이종영 111-03209-14
 이민숙 111-03210-14
 이춘성 111-03211-14
 김권태 111-03212-14
 정은주 111-03213-14
 이상숙 111-03214-14

결핵퇴치 회원

박명순 311-00286-13

아프가니스탄 회원

김명희 511-00135-15
 장병철 511-00136-15
 우지희 511-00137-15

단체 결연

우리누리 212-11808-14

특별후원금

이종행 770,000 장학수 500,000 성불암 295,000 박선화 720,000 신방학중학교 130,000 무명스님 500,000 GIP봉사회여객동무 300,000 민평협 624,000 안병길 안지혜 안정환 7,900,000 이순희 500,000 244차개장모임720,000 245차개장모임 60,000 뉴욕정토회 7,755,000 김희석 30,000 청안사 600,000 김광혜 117,800 윤명근 500,000 김용식 500,000 이영주 50,000 김애자 200,000 김순기 100,000 박규순 720,000 연홍석 50,000 광문중학교 675,860 피스나우저팬코리아 2,208,000 박순환 150,000 김순자 100,000 재일코리아청년연합 1,947,140 놀아버리는쌀 500,000 임춘자 50,000 김애자 96,000 김민영 480,000 임영광 55,000 박승자 50,000 일과놀이 700,000 장현철 700,000 엄창수 1,000,000 황정아 50,000 장선희 25,000 엄바다 100,000 대전보현불교대 500,000 혜영스님 50,000 윤종호 50,000 김애리 2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 5,000,000 이근희 50,000 배운선 50,000 박금희 25,000 배정인 50,000 김동현 10,000 배원준 50,000 남현승 30,000 유정식 25,000 김동연 10,000 남현정 30,000 김세인 10,000 김남식 50,000 세 등선원보리회 100,000 성영애 70,000 무명 100,000 김경희 150,000 이선자 150,000 서송열 400,000 김명훈 80,000 장일선 300,000 무명 100,000 박경화 50,000 김윤식영가 50,000 정순자영가 50,000 전용택 50,000 남현정,현승 30,000 김세인 50,000 이태수 50,000 김대웅 50,000김영화 50,000 한형식 100,000 김백식 50,000 송완희 50,000 노경숙 50,000 황선옥,순천,순혁 160,000 윤인숙,50,000 정홍자 100,000 지은아,연수영가 720,000 김근희 50,000 김영숙 720,000 박일선 50,000 이현치 100,000 이병철 50,000 최용재 150,000 황봉석 100,000 신영미 100,000 한마음선원중부지원 100,000 윤정선 100,000 배은경 50,000 한초자 100,000 김보미 2,880,000 이인옥 40,000 신영숙,신철영가

1,000,000 황영숙 50,000 정덕연,류덕춘연가 720,000 이영란 50,000 오미라 100,000 김수경 30,000 이덕주 20,000 이병수,명생연가 1,000,000 박일선 150,000 박정선 150,000 이선표 30,000 황수경 30,000 무명 500,000 이규정 50,000 장선옥,신미애,장현빈 150,000 무명 100,000 이정표 30,000 고란숙 50,000 안미경 150,000 북한어린이양식 500,000 유창희 570,000 불교삼보사 500,000 운문사스님들 120,000북한 어린이돕기 1,612,000 송인선 5,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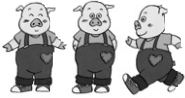
뉴욕제이티에스 아파트 맨트학교, 재능을 지원(단위는 \$입니다)

팜퍼키노 50 최경숙 645 이점선 45 최선생 690 안수연 45 안재춘 45 안재연 45 세군달라 45 우루밀라 45 이현주 100 심현선 100 정명숙 42 김연문 45 목상호 600 이운재 90 ReyLamsal 10 Dahel 10 Nhuchhe 10 Joshi 10 Gagan 10 Chandra.S.Rai 40 김영순 50 강금난 50 김순심 100 이시화 45 김상철 45 원현우 45 유예경 45 최병희 45 원성희 100 원재희 45 황영희 50 조새미 50 박영옥 50 김정득 50 김희정 50 김은제 50 전은자 50 차명옥 100 김찬진 500 이복희 50 전정숙 2,000 윤순지 20 변지임 20 원타 50 김욱기 50 주복진 30 황순홍 20 고신옥 20 서영자 10 문정윤 800 김수정 45 김택수 1,665 김현자 100 이연순,이창룡 600 허효길,김남순 200 한영실 600 심인유 250 제임스플레밍 100 전정숙 200 민덕홍,김순영 100 차효순 150 김문수 42 안홍철,안영옥 1,020 이범선,이봉희 100 유중숙 50 알빈서 50 함묵란 20 김정현 20 함영복 20 이외선 20 이신구 20 김신 50 유승묵 45 조병창 600 김한주 45 조일용 100 이인자 45 조영 45 조현 50 조영환 100 Mirabeau 20 Charles유 100 손리아 600 손정애 45 Broad Rock AutoService 100 이동원 45 SonamYangzom 45 Yaser 20 최만성 100 정치량 500 부경숙 500 가인순 50 임선희 45 임지인 30 송지혜화 10 송덕민 10 윤관음화 45 평등심 50 문성준 50 신병철 100 김희숙 30 박혜수 145 구축핵 50 박영아 50 안정환 100 필라원각사대중 640 원불교정문화재단 225 허록산 100 윤홍선,김혜숙 600 윤사라 50 이마야 50 김영주,이주영 50 이승은 50 김정자 50 고복순 20 윤주용 50 이정민 50 김유준,유리 50 선바람 50 김숙현 50 김병용 50

물 * 품 * 후 * 일

8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들어온 물품입니다.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안사 세수대야 4박스, 생필품 7박스 2. 제주소년원 담요 15장 3. 자은정사 쉼타 300여장, 형검 3몽치 4. 최관현 교과서 6권 5. 대구 성요셉재활원 담요 50장, 유아팬티 300장, 유아내의 200여벌, 노트2박스, 카펫3상자 6. 조선경 어린이로션 205개 7. 서울정토법당 파일노트 2박스, 찜질팩 등 생필품 1박스, 재활용의류 등 2박스 8. 인성크로마텍주식회사 티셔츠 200장 9. 마산창동약세사리 팔지, 머리띠, 머리핀 등 약 세사리 1박스 10. 불법사 티셔츠 76, 츄리닝70, 바지15,양말45, 쉼타13, 조끼 등 의류 8박스 11. 금천선원 런닝10, 티셔츠52, 연필40개, 볼펜 24, 비누70, 치약칫솔20 등 생필품 3박스 12. 청주법당 담요16, 비누45, 재활용의류 등 1톤 트럭 1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청주소녀원 담요 및 카펫 55장 14. 광주정토법당 담요15장, 이불 18장, 재활용의류 등 18박스 15. 마산정토법당 담요,매트100장, 타올 30장, 비누치약 50개, 컴퓨터용지 2박스 16. 마산 화이트앤블랙 아동,성인화 250켤레 17. 월덕컴산대리점 아동,성인화 250켤레 18. 마산 세창공업사 원단 46롤 19. 부산정토법당 장난감, 학용품, 생활용품 각각 1박스, 재활용 담요 및 의류 16마대 20. 울산정토법당 재활용이불 및 의류 2박스, 생필품 1박스 21. 울산 이상희님 원단 10롤 22. 대전 재활용 의류 및 담요 1톤 트럭 1대 분량 23. 대구정토법당 담요,이불 10마대, 학용품1박스, 피리2박스, 내의7박스, 티셔츠8박스, 장갑2박스, 양말8박스 24. 성불사 의류 1박스 |
|---|--|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3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통일돼지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광주

거리모금 462,540 신희민 9,870 신희송 8,730 신희송네집 13,940 우산중학교 1학년8반 (고재근 1,000 기연진 2,280 김미란 3,570 김선정 3,070 김재영 1,000 김지인 1,000 김희경 14,290 나만우 2,000 나태양 1,000 무주상 2,380 무주상 3,760 박민호 1,160 박소연 2,050 박한결 2,000 서혜미 2,000 손선영 2,160 송지수 6,480 유동민 1,000 이기쁨 2,500 이다희 1,500 이슬아 3,120 이아롬 2,990 이정엽 3,760 장경 1,670 장빛나 2,690 장혜진 1,620 정태호 1,000 홍연실 5,610 황윤희 5,030 합계: 83,690) 첨단초등학교 2학년4반 (김영상 500 김유라 3,720 김정민 2,540 무주상 1,790 무주상 18,710 무주상 3,860 무주상 4,510 박혜지 900 백아현 1,020 백재영 1,310 안슬아 14,150 이기택 3,560 이민하 9,090 이유미 1,930 이찬 1,600 정성일 5,890 정혜원 200 조덕형 1,490 최지은 5,640 황혜진 2,820 합계: 85,230) 첨단해물칼국수 30,980

대구

거리모금 1,416,720 거리모금 4,603,770 거리모금 2,989,830 고광훈 33,020 김경아 26,740 김순녀 19,050 김양모 24,640 김양모 20,930 김연화 3,510 김영숙 13,470 김준형 22,600 꽃꽃이산생님 20,710 대구청소년철학원 14,960 덕신장여관 20,310 묘덕왕 69,810 무주상 6,010 박경자 39,500 박준영 21,500 배재갑 31,380 서정민 63,980 선영엄마 7,490 송은혜 7,490 수미광 103,700 신군숙 28,850 안영대 20,210 이미경 26,850 이수민 10,800 이순옥 25,090 이정환 25,310 이정환 21,900 이준호 31,170 정평화 15,820 조순옥 29,190 조옥분 30,060 채정기 34,800 최봉기 19,200 칠보우리웃 11,810 희열광 18,040

대전

강정욱 2,340 거리모금 2,702,820 거리모금 4,230,830 권오한 11,220 길순용 15,800 김건형 6,690 김남식 28,550 김명화 10,140 김상태 40,540 김은아 18,010 김창연 22,000 김현희 3,440 무주상 18,880 무주상 15,960 무주상 18,730 무주상 5,990 무주상 17,800 무주상 21,820 무주상 5,880 박영민 10,900 박웅진 14,370 삼화미용실 37,160 설명규 2,990 송옥 19,200 이나영 32,380 이은숙 19,810 이재호 31,970 한찬혁 22,180 한형식 21,960 한형인 29,450 황귀숙 25,100

마산

거리모금 375,920 김보미 62,290 무주상 17,570 무주상 25,120 성현철 17,890 오미라 17,160 윤인숙 19,670 윤인숙 28,750 음식나라 13,200 책마을 9,450 최근수 32,020 최낙동 45,160 최동원 95,620 최지수 24,090

부산

강동현 29,650 강순덕 12,780 강정숙 17,290 강정숙 29,980 강정숙 47,550 거리모금 660,000 구자성 8,360 김경자 28,530 김경희 18,000 김민정 9,890 김민하,현정 6,170 김보연 6,130 김재욱 25,360 녹십초 43,600 녹십초 2,110 녹십초 11,000 녹십초 2,300 녹십초 25,650 녹십초 12,110 녹십초 11,800 녹십초 35,930 녹십초 10,690 만균섭 37,180 무주상 8,010 무주상 42,670 무주상 57,320 무주상 15,250 무주상 46,130 무주상 24,300 무주상 7,910 무주상 73,410 무주상 7,000 무주상 8,990 무주상 35,540 무주상 31,350 무주상 32,290 문정자 17,180 민혜,헤리 16,690 박계선 33,500 박수현 21,230 백일 전국텔레이모금 3,464,940 백점단 13,360 범문주 77,350 범문주 77,790 범성행 15,110 부따 15,700 성다영 12,870 성영애 17,310 손현호,손다혜 6,120 아름,도경 13,550 안순자 13,000 오름,누리 37,700 오은 선 16,120 윤숙남 19,600 이경희 23,000 이금자 11,800 이미란 17,620 이민경 13,690 이준호 24,500 이혜수,이희수 23,770 정귀순 4,390 최정숙 24,120 주병우,주현재 13,220 허영조 39,660 허중구 55,200 허진호 30,320

서울

강중익 75,980 강지영 41,350 강지영 119,000 강현수 33,120 거리모금(서울정토회 복지팀) 127,180 거리모금(서울정

토회 복지팀) 142,770 거리모금(설갑문,이다숨,남강빈,설희정) 96,410 거리모금(황화숙) 20,350 거리모금(황화숙) 17,000 고현중 35,610 고흥중 23,900 고희경 28,410 공순분 24,900 광성규 53,240 국민은행남부터미널지점 1,360 권도 50,000 권영미/오재건 26,420 권영배 36,650 권오목 2,200 권유정 20,050 권혜숙 29,640 김 향 41,490 김 가한의원 41,120 김경민 5,290 김경민 10,540 김경희 18,030 김기진 27,300 김남영 31,640 김다민 3,050 김대동 15,700 김명수 1,000 김명환 25,660 김민재 27,400 김봉준 21,420 김상울 300,000 김서대 29,580 김성철 3,000 김솔지 22,480 김애식 19,310 김애자 30,390 김영중 9,270 김원자 29,050 김유아 6,750 김은경 23,710 김은진 6,250 김재천 5,000 김정규 28,470 김정숙 10,000 김중숙 10,740 김지원 15,840 김지원 23,260 김준하 26,550 김해순 21,920 김행란 14,400 김현주 4,280 김혜련 40,000 나태운 17,240 남 궁 32,810 류상엽 10,550 류현복 10,230 무주상 11,690 무주상 10,900 무주상 42,670 무주상 28,100 무주상 45,450 무주상 63,450 무주상 9,460 무주상 21,420 무주상 28,040 무주상 10,460 무주상 12,990 무주상 2,000 무주상 1,770 무주상 1,480 무주상 3,100 무주상 2,600 무주상 4,750 무주상 25,860 무주상 39,760 무주상 30,260 민수,혁순 50,700 박광철 1,200 박동만 26,100 박명기 11,100 박문수/지수 15,070 박선미 41,290 박숙영 34,100 박순정 20,580 박영수 1,370 박영자 16,530 박옥정 108,750 박재규 33,650 방영숙 13,570 변호영 30,000 서병하 30,470 서수경 28,330 서원빈 12,750 서창환 31,530 서창환 28,970 성남중학교 모금 141,410 소재인 16,240 손영혜 15,880 송세정 4,800 신동우 14,820 신상우 3,270 신정숙 30,140 신정숙 32,840 신정숙 17,960 신정태 16,030 신지은 12,990 심유현 23,940 심을택 32,730 안병련 10,840 안승목 100,080 안정환 26,650 양두섭 17,330 양복경 10,060 오윤정 52,240 오주을 5,570 오창권 3,000 오혜영 5,300 우정인 25,520 우정인 17,330 우정인 14,990 우정인 17,320 원경사 모금 387,500 유성현 36,640 윤금희 28,250 윤미옥 7,390 윤병갑 5,000 윤상은 10,010 윤상은 29,110 윤영혜 11,930 윤은경 3,980 윤정희 14,500 윤혜수 20,510 윤해수 101,840 이 운 19,380 이 운 13,030 이근하 8,370 이경애 46,860 이광남 2,100 이광식 17,820 이광혁 2,750 이도화 23,060 이상훈 24,710 이아름 3,460 이애향 6,700 이연정 8,950 이재현 4,830 이정선 1,530 이정태 1,700 이진용 20,920 이청심 1,000 이한울 3,840 이혜정 45,580 이희정 21,790 임대혁 34,040 임불수 17,850 임성희 32,220 임정복 18,530 임정애 27,140 잠은주 8,320 전민경 12,600 전민지 12,620 전성지 24,660 정동환 5,320 정종순 3,120 조순희 3,300 조정휘 27,000 차상호 14,850 차호영 26,180 차호영 23,990 채정길 34,620 채효준 8,900 최은석 21,660 최이섭 34,890 하경태 7,870 한승희 24,900 한영국 2,220 한영일 6,470 한은식 3,840 한일창년 명동거리모금 234,110 한지현 16,920 한희자 44,120 현오영 50,850 K. M. Song 2,300

은곡초등학교 7,110,110원

가훈인 17,620 강기률 4,640 강민선 4,650 강민식 8,850 강상우 7,210 강세철 2,410 강소연 3,650 강소운 5,430 강소훈 4,020 강승우 4,370 강승현 4,160 강원철 6,160 강유조 2,030 강은수 5,920 강지수 11,810 강지완 1,580 강지현 6,940 강찬 8,740 강한걸 7,780 강현수 16,950 고경민 14,510 고수범 12,760 고수영 8,200 고승현 1,210 고연주 1,690 고영근 3,250 고우리 9,350 고은지 6,590 고창석 2,800 고재함 11,660 고제연 4,270 광성미 5,590 광용우 3,270 광준한 11,440 광지윤 10,120 구문선 27,050 권나혜 4,950 권명수 13,370 권명희 4,630 권세윤 3,650 권소연 4,430 권수지 4,280 권순우 10,300 권순지 4,550 권승현 10,270 권용민 3,850 권원중 1,930 권재용 12,230 권재은 12,320 권준하 6,050 권태형 7,030 권혁 3,490 권혁상 7,840 권희재 11,660 권혜민 15,860 권혜련 14,800 금상훈 13,620 기영진 9,060 기영재 7,640 김강원 11,290 김건호 1,670 김경래 7,610 김경우 2,580 김경윤 2,570 김경태 10,140 김근우 6,450 김근태 5,670 김기성 4,790 김나형 13,920 김남주 5,730 김노아 4,210 김다미 2,140 김다운 7,720 김단아 5,810 김대선 5,650 김도경 6,470 김도연 3,700 김도진 1,940 김도훈 6,450 김동규 3,760 김동규 5,630 김동규 12,050 김동범 6,660 김동영 6,280 김동진 5,450 김동현 4,090 김동휘 4,970 김로빈 5,530 김명선 4,220 김민경 2,460 김민경 6,300 김민서 4,210 김민석 8,530 김민선 2,270 김민선 14,640 김민수 3,720 김민수 2,500 김민준 1,990 김민지 4,910 김민지 12,480 김범준 5,910 김범준 9,570 김병과 10,050 김병규 4,130 김병준 5,480 김보라 4,600 김보라 9,320 김보람 1,750 김보람 980 김상민 7,130 김상은 6,440 김상훈 1,830 김서우 15,230 김성대 4,500 김성진 4,550 김성현 1,850 김성훈 5,700 김세은 5,120 김세진 13,350 김세훈 6,560 김소담 8,720 김소라 10,940 김소연 4,400 김소윤 7,710 김소희 2,190 김소희 6,170 김소희 20,880 김숨이 2,130 김수경 10,800 김수미 14,820 김수민 17,290 김수민 16,850 김수연 1,660 김수연 8,370 김수연 8,150 김수지 5,700 김수진 14,160 김수창 5,200 김승겸 10,670 김승연 7,720 김승태 7,210 김승환 10,430 김승환 1,430 김아라 10,150 김연하 4,030 김영선 10,090 김영조 4,250 김에나 3,870 김예린 4,010 김예림 14,070 김은우 460 김윤영 18,510 김유경 3,910 김유경 3,890 김유미 11,670 김유미 6,970 김윤재 7,900 김윤재 15,200 김윤수 3,690 김은경 1,880 김은비 2,850 김은지 16,160 김이슬 7,160 김이슬 16,260 김인섭 4,740 김인영 11,760 김인수 4,260 김재우 4,610 김재윤 11,640 김재중 6,690 김재혁 7,910 김정민 1,730 김정민 6,760 김정민 4,580 김정민 2,680 김정섭 20,280 김정수 19,890 김정우 7,870 김정은 4,970 김정인 7,270 김주영 4,540 김주현 17,350 김주희 2,220 김준영 3,100 김준

호 6,690 김준화 3,830 김준환 1,070 김지민 2,140 김지연 5,080 김지원 9,650 김지윤 7,160 김지는 20,650 김지
 혜 9,420 김진수 6,710 김진영 12,280 김진원 20,120 김진홍 11,400 김찬 17,830 김찬식 6,350 김채원 11,010 김채
 현 5,550 김철성 2,050 김탁연 3,370 김태림 4,330 김태석 5,260 김태영 2,180 김태우 3,730 김태우 1,230 김태형
 3,050 김필 11,360 김학범 4,710 김한솔 3,900 김한솔 1,890 김현민 1,300 김현서 5,100 김현석 1,580 김형건
 12,200 김형기 9,820 김형우 4,490 김형준 11,410 김혜미 8,710 김혜련 6,330 김호균 10,350 김호연 3,520 김홍균
 1,620 김홍근 2,400 김효민 8,620 김희영 5,350 김희원 1,880 김희준 6,610 김희진 11,480 나승이 4,890 나승이
 7,470 나유빈 1,150 남건호 4,380 남궁수빈 5,780 남상우 5,070 남세정 5,440 남효진 19,210 남희진 4,580 노대현
 3,120 노범준 5,080 노상민 2,100 노승주 1,970 노승현 600 노윤택 16,630 노지영 13,490 노진산 3,000 노홍경
 7,760 류혜인 3,640 매희선 2,880 무주상 3,300 무주상 4,170 무주상 12,060 무주상 6,390 무주상 3,050 무주상
 6,900 무주상 5,780 무주상 2,200 무주상 14,120 무주상 7,790 무주상 1,060 무주상 2,080 무주상 5,320 무주상
 2,660 무주상 11,640 무주상 23,990 무주상 6,050 무주상 6,780 무주상 8,300 무주상 6,270 무주상 5,200 무주상
 8,150 무주상 9,160 무주상 3,370 무주상 3,900 무주상 6,220 무주상 9,780 무주상 10,760 무주상 4,660 무주상
 2,900 무주상 7,130 무주상 2,880 무주상 4,770 무주상 1,030 무주상 2,830 무주상 16,090 무주상 7,480 무주상
 840 무주상 2,650 무주상 14,940 무주상 3,980 무주상 1,175 무주상 3,480 무주상 2,360 문지연 2,770 문혜진
 7,780 민관 6,570 민서진 9,690 민주홍 10,520 박건양 4,810 박광호 10,800 박기덕 9,500 박기영 4,060 박남욱
 6,810 박다나 3,900 박대희 9,120 박민경 13,980 박민정 3,920 박민정 4,290 박민정 3,380 박상경 2,750 박상영
 3,430 박상진 510 박서연 6,790 박선민 820 박선영 1,930 박선주 1,260 박성우 17,920 박세정 10,970 박소연
 4,900 박소연 9,980 박소영 1,830 박순수 8,840 박순열 6,340 박순혁 1,850 박아름 11,600 박양경 4,720 박홍근
 8,770 박유성 5,840 박유진 8,650 박유찬 7,590 박은정 5,470 박의정 2,110 박재우 13,700 박재은 4,570 박재현
 3,990 박재형 7,790 박정우 25,160 박정원 7,760 박정은 5,200 박정은 14,370 박정은 1,670 박정훈 10,950 박정훈
 9,020 박종택 21,800 박주영 11,080 박주영 7,870 박주현 23,760 박종철 11,620 박지수 11,780 박지영 5,610 박지
 월 11,860 박지음 13,020 박진균 5,810 박진성 3,170 박진수 11,630 박진우 1,880 박진태 240 박진현 3,520 박찬영
 3,840 박찬울 4,200 박창하 2,300 박채민 5,530 박채연 6,170 박태석 8,440 박태주 4,420 박태준 17,010 박태훈
 6,080 박현나 11,450 박현나 4,330 박현경 2,450 박현규 4,630 박현성 4,100 박현정 6,590 박현정 1,590 박현주
 3,480 박호영 2,240 박호영 3,080 박호준 5,080 박호진 2,550 배소라 27,450 배유비 6,270 배윤혁 6,990 배정민
 9,120 배지영 7,450 백서연 9,190 백이란 820 백자은 17,920 백지윤 10,760 범유진 4,720 변서윤 10,700 변성우
 9,880 변준형 7,400 병훈 1,540 복서호 19,880 복준혁 5,510 봉효빈 1,760 비태욱 18,230 빈채은 5,850 서가영
 3,140 서동원 12,900 서민지 860 서서은 5,570 서예원 4,220 서용덕 14,400 서유림 8,130 서유림 5,980 서윤진
 6,540 서지는 6,200 서하림 23,370 석수연 10,880 석수진 7,310 성다빈 3,040 성원 1,500 성유나 9,860 성준기
 6,670 성지우 12,660 성호진 5,990 소시희 2,990 소예림 7,010 소해민 3,420 소현규 9,260 손기영 7,760 손민균
 7,940 손소라 7,610 손수정 4,940 손솔비 10,630 손유석 3,320 손유선 670 손형인 13,350 송교준 10,570 송명철
 7,060 송민석 6,900 송수아 8,980 송슬기 4,200 송식한 9,740 송영석 8,670 송원준 6,590 송윤희 1,190 송이람
 7,370 송제이 4,080 송주희 13,250 송지민 8,330 송진영 7,350 송차원 5,340 송하나 7,320 송현서 17,480 송현준
 3,090 송혜주 4,710 승연 3,410 신명규 8,380 신병석 19,670 신선호 7,110 신소연 6,220 신소영 520 신아현 4,470
 신예은 3,620 신윤선 6,020 신윤식 7,470 신은지 3,610 신정호 10,000 신지섭 4,020 신지호 14,720 신진수 8,710
 신현주 4,540 신혜원 660 심재훈 6,740 심재훈 17,300 심형석 15,380 심형섭 19,300 심혜리 6,600 안나영 2,780
 안민승 4,960 안민영 690 안병욱 5,430 안상우 13,070 안유진 16,830 안재정 6,350 안재현 3,310 안정민 3,720 안
 종원 2,570 안종찬 2,270 안중욱 1,790 안지미 2,280 안진현 3,040 안채연 5,650 안효은 12,560 안효정 4,180 안희
 찬 15,650 양지현 19,390 양지훈 2,240 양하은 3,040 엄지원 2,990 염승비 1,980 염예진 6,250 오미진 14,610 오
 민서 5,700 오서정 2,240 오윤정 4,940 오은혜 4,770 오정섭 5,390 오정연 4,690 오정연 3,550 오정훈 5,650 오지
 수 760 왕예린 8,040 왕윤성 12,450 왕태정 2,960 왕진 9,200 우승재 4,480 원가영 5,190 원재성 3,000 위병근
 6,870 위동현 4,340 위성우 24,340 유시훈 12,680 유영택 3,080 유예린 17,880 유예림 3,190 유재은 4,060 유정민
 7,270 유정희 14,560 유지자 3,260 유지영 3,170 유지우 9,680 유재우 2,590 유하은 9,750 유하진 9,320 유한솔
 11,450 유한진 3,300 유현정 2,110 유혜인 4,100 윤도현 8,160 윤민수 3,200 윤새봄 450 윤성욱 10,840 윤세움
 2,950 윤소영 1,640 윤수빈 13,770 윤영재 6,120 윤재은 12,710 윤정희 18,730 윤지혜 4,480 윤하진 8,720 윤한별
 3,960 윤해찬 4,250 윤혜연 9,720 이기는 4,590 이기는 5,060 이가민 2,910 이강현 2,300 이경 4,550 이경철
 1,950 이경호 1,710 이규은 1,810 이관규 4,400 이관희 5,520 이광훈 5,180 이관우 5,670 이규리 9,420 이규복
 14,550 이규원 8,110 이규태 3,090 이근우 6,500 이기훈 19,360 이다빈 3,730 이다영 11,970 이대현 5,020 이도형
 2,430 이도희 7,270 이동경 13,980 이동민 6,890 이동주 3,220 이동주 3,680 이동현 10,660 이동훈 7,370 이마현
 4,500 이민지 2,950 이민형 7,580 이병현 7,720 이병훈 8,240 이보라 5,130 이상명 7,110 이상민 1,180 이상연
 6,150 이상지 7,340 이상철 3,780 이상택 6,220 이상현 3,890 이상현 3,280 이상희 6,070 이상현 2,580 이수민
 10,080 이수정 9,000 이수하 3,670 이수현 13,760 이수현 2,780 이수현 11,080 이슬기 18,610 이승한 3,700 이승

환 20,260 이매지 2,710 이여진 6,030 이연주 15,390 이연주 2,280 이연주 14,590 이연지 4,660 이영엽 1,980 이
 영재 5,360 이영진 2,540 이영현 9,540 이영호 4,020 이영훈 3,310 이예은 21,730 이예지 13,210 이예현 14,660 이
 용욱 11,050 이우경 7,620 이우중 11,450 이우진 5,150 이원빈 2,590 이원진 3,300 이유순 9,560 이유희 5,760 이
 유진 8,340 이유진 6,260 이윤영 7,840 이윤정 13,990 이윤지 1,940 이윤형 4,700 이은경 6,720 이은서 2,920 이
 은수 3,420 이은우 7,490 이은이 1,930 이은정 5,300 이은정 6,480 이인호 8,170 이재봉 4,950 이재상 2,710 이재
 영 8,070 이재우 7,440 이재원 2,990 이재은 5,720 이재준 6,730 이재희 12,290 이정민 6,790 이정민 6,680 이정
 우 12,840 이정윤 4,400 이정인 1,250 이종업 8,100 이주면 9,290 이주연 20,590 이주영 2,440 이주원 3,900 이주
 형 9,900 이준범 7,020 이준식 8,440 이준한 3,930 이지민 17,700 이지영 8,890 이지영 8,090 이지우 3,600 이지
 은 1,670 이지형 9,380 이지환 9,400 이진수 3,170 이진현 6,060 이찬식 7,630 이찬우 11,690 이창호 13,690 이충
 희/이건호 10,890 이하늘 9,950 이한나 2,720 이한나 20,520 이한나 4,580 이혁주 2,860 이현서 7,170 이현재
 3,600 이현지 580 이현지 2,070 이현지 9,220 이혜금 4,500 이혜준 11,200 이화경 19,640 이희원 4,700 인수근
 2,060 임나영 12,010 임동연 2,850 임동화 7,340 임상윤 1,250 임소연 8,540 임수빈 15,780 임승환 8,050 임영선
 7,190 임예진 13,000 임윤진 11,850 임은지 2,370 임준혁 810 임진호 4,600 임태균 1,760 임태오 3,330 임태완
 11,450 임태욱 2,890 임현지 2,240 임혜민 8,660 임희연 2,670 임희원 10,860 정동열 6,610 정문구 18,650 정문수
 7,600 정민지 4,900 정범수 3,810 정성우 8,080 정승혁 4,110 정인호 8,520 정재경 5,990 정지용 3,560 정혜리
 12,410 장호진 10,460 장화정 5,620 장희은 4,510 전미정 12,090 전민정 3,600 전병림 6,450 전성용 4,880 전술민
 12,050 전영신 3,890 전예원 5,860 전예원 7,120 전예은 650 전우진 7,380 전은성 2,340 전주우 26,150 전지원
 8,450 전진희 850 전태규 1,230 전하영 1,520 전하은 7,300 정광원 10,960 정구현 6,530 정규원 1,750 정기혜
 3,800 정다승 11,420 정다운 3,810 정다훈 3,460 정다훈 1,580 정동년 13,020 정보경 6,080 정성훈 6,170 정성호
 9,870 정소영 4,180 정숙희 4,120 정슬기 4,600 정슬미 2,870 정승규 7,630 정승현 9,065 정승혜 9,580 정언우
 2,400 정영재 6,230 정예빈 3,720 정용현 1,870 정윤선 5,700 정은진 1,970 정인혁 5,120 정일천 3,140 정장산
 9,010 정재열 6,770 정재호 7,720 정주예 12,120 정준호 14,040 정지섭 9,740 정지원 11,780 정지원 1,310 정지은
 6,850 정채원 4,630 정태훈 27,200 정하림 7,630 정해만 12,760 정혜민 5,390 정향도 8,270 조남훈 5,280 조동우
 10,140 조민아 5,470 조성민 4,420 조성호 4,600 조수명 5,440 조영남 2,870 조영남 6,290 조준환 4,260 조해선
 4,730 조해진 3,990 조현경 3,480 조현상 20,520 조현선 8,990 조현정 21,640 조혜린 9,710 조혜미 2,750 조혜선
 9,010 조환준 3,190 조희애 4,720 주민혁 11,350 주예진 12,870 주진의 17,190 주혜진 7,650 지수 9,090 지승환 2,650
 지현정 7,450 지혜림 12,120 지훈 2,600 진가윤 2,930 진교준 2,000 진소령 1,060 진하윤 2,360 진형원 3,120 차수연
 2,150 차영현 2,210 차희덕 3,860 채영서 12,800 천홍필 6,060 최경원 4,590 최기환 19,520 최덕재 5,680 최미예
 2,330 최민경 8,750 최민성 9,000 최보라 1,200 최서영 2,950 최선우 5,910 최선우 23,050 최수경 1,140 최승환
 24,140 최연호 8,880 최연호 7,500 최영수 3,710 최영준 29,590 최영준 16,430 최예나 620 최원우 2,270 최유정
 9,300 최유진 4,730 최윤정 3,970 최은아 3,130 최은홍 6,780 최의명 770 최재필 20,750 최점윤 1,150 최지나 2,830
 최지에 7,550 최지혜 16,760 최지혜 5,660 최황구 1,280 최현우 8,610 최형준 11,900 최혜린 3,920 최혜수 8,570 최희
 정 5,030 하수민 8,800 하정민 4,640 하지민 19,090 하지수 6,710 한경열 2,720 한미진 2,670 한민경 3,340 한보람
 4,210 한솔희 23,520 한수민 4,050 한승현 8,550 한승희 5,960 한승희 24,980 한인선 14,790 한진희 18,380 한창민
 11,200 한태민 3,780 한혜원 8,480 함문영 2,480 하성실 17,590 하준열 5,510 허혁진 5,110 현소라 10,060 현자수
 18,100 홍예민 25,320 홍우리 10,320 홍유림 5,570 홍정림 5,570 홍지민 4,410 홍태환 3,850 홍혜수 22,060 홍혜수
 16,000 황도영 8,030 황보영준 7,030 황승현 8,670 황정호 2,060 황주원 20,590 황자수 5,700 황지영 3,290 황지영
 4,830 황지원 4,730 황지은 16,620 황지환 7,170 황현호 14,480 황호 1,370 황호경 6,750 기타 578,160

○ 제천

거리모금 (유윤식) 139,510 거리모금 (유윤식) 141,750 김연호법사 22,900 김명자 17,360 김희남, 김지선 19,510 박연
 준 30,940 박은희 24,500 양성문스님 100,000 예이스마트 13,380 유다민 17,730 유동욱 18,020 유현욱 20,960 이
 숙향 41,980 이위순 19,990 임민규 23,450 중앙식품 16,080

○ 청주

거리모금 1,218,420 윤이나 32,520 이경숙 23,490 이영희 25,450 이현정 10,350 임진득 15,780 전문숙 10,000 전
 윤숙 10,000 홍정우 28,240 황경주 24,170

○ 해외정도회

독일 292,100 (무주상 31,730유로화 안은길 55,05유로화 정길순 85,50유로화 홍미희 51,70유로화)



라진·삼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3년 10월 20일 현재

라진·섭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3년 10월 20일 현재



따뜻한 이웃이 있기에...

최대원심 / (사) 한국제이티에스 홍보부

눈부신 햇살,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란 하늘, 그리고 나날이 변해 가는 나뭇잎을 보고 있으니 새삼 세월의 빠름을 느낀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자연을 보면서 나를 돌아 본다.

소식지 '우리가 함께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맡은 지 어느덧 햇수로 3년이 되었다.

조금이나마 후원인 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지만 늘 미비해 미안한 마음이다.

얼굴도 모르지만 꾸준히 후원금을 내주신 후원님께 원고를 청탁하면 글을 못 쓴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바쁜 시간 내어 정성껏 글을 써주신 분들이 있어 얼마나 고마웠던가.

그 인연으로 지금은 따스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분들도 있어 행복하다.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기도 바쁜데 때가 되면 글을 써주시는 해외에 계신 분들의 있기에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잊지 않고 후원해 주시는 분, 거액의 특별성금을 내주시는 분, 거리거리에서 모금해 주신 분, 돼지 저금통에 정성스럽게 모아 온 금액을 실으면서 이들의 고마움이 전해온다.

소식지가 나오는 달에는 괜스레 몸도 마음도 바쁘니 부서원들이 긴장된다고 우스개 소리를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 또한 욕심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원고를 정리하고 사진을 배열하고 그리고 몇 번의 교정을 본 후 한 권의 소식지가 나오기까지 많은 이들이 수고를 한다

그리고 사전 작업을 한 봉투에 소식지를 넣어 우체국 발송까지...

이제 좀 더 참신하고 새로운 소식지가 만들어 질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따스함 보여주시는 여러분께 우면산의 고운 단풍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